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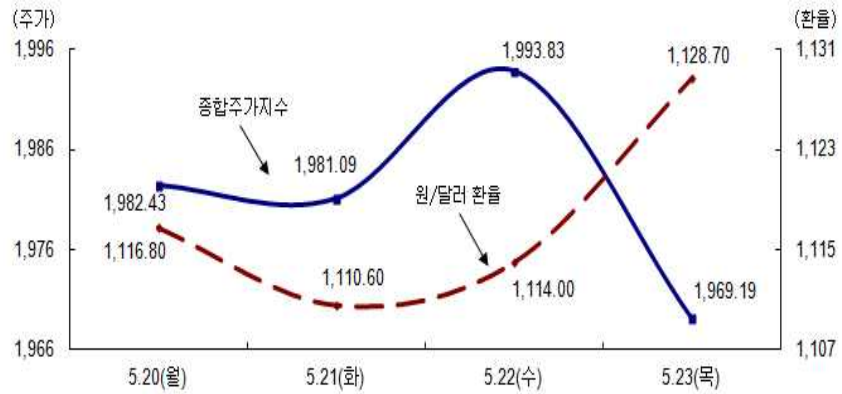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엔화 가치 급락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5.20~5.23)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엔화 가치 급락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2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를 밝혀두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작성 : 임 회 정 연구위원 (2072-6218, limhj9@hri.co.kr)
 김 천 구 선임연구원 (2072-6211, ck1009@hri.co.kr) 외

Executive Summary

□ 엔화 가치 급락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엔/달러 환율 110엔 이상 돌파 우려

최근 엔/달러 환율은 아베 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 시행으로 4년 만에 100엔대를 돌파하는 등 빠르게 절하되고 있다. 엔저 현상은 향후 1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대로 엔화가 절하되면 상반기말에 110엔, 연말에 120엔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엔화 가치 급락의 배경

첫째,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양적 완화 정책 시행이다. 아베 정부는 엔저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본원통화 확대, 국채매입 규모 및 범위 확대 등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G7회의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엔저를 용인 받으며 엔화의 절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둘째, 일본의 무역적자 확대이다.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2011년부터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한 일본은 최근 적자폭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셋째,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 완화이다.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증가하였던 엔화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되며 수요가 감소하였다. 넷째, 일본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졌다. 아베노믹스 시행으로 중장기적으로 정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며 적절한 통제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다섯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나치게 고평가되었던 엔화가 점차 정상화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 엔화 약세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 충격) 엔화 환율의 급격한 약세는 원화 환율 변동성을 높인다. 엔/달러 환율이 1% 변할 때 원/달러 환율은 0.62% 변한다. 또한 엔화 환율의 약세는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내 기업들의 가치를 낮추고 주식시장을 위축 시킨다. KOSPI 주가와 엔/달러 환율 간의 상관관계는 -0.70으로 엔화 환율의 가치가 약세일 때 KOSPI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대외거래 악화) 엔/달러 환율이 2013년 연평균 100엔으로 상승시 국내 총수출은 2.6% 감소한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 보면 철강 326억 달러(-11.9%), IT 1,098억 달러(-1.8%), 기계 380억 달러(-1.7%)로 감소할 전망이다. 수입은 엔/달러 환율이 연평균 100엔으로 상승시 2.5% 감소한다. 무역수지는 엔/달러 환율이 연평균 100엔일 때 2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억 달러 감소할 것이다. 관광수지는 한국에 입국하는 일본인 관광객은 감소하는 반면 일본으로의 한국인 관광객은 늘어 약 10.9억 달러 감소할 전망이다.

(성장률 둔화) 엔화 약세로 인한 무역수지 및 관광수지 악화 등은 국내 경제 성장률을 0.2%p 내외로 감소시켜 추경과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 시사점과 과제

첫째,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미세조정 및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원/엔 환율의 급락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일본의 양적완화에 따른 엔저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관련 국가들과 통화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요 수출시장에서 FTA의 적극적인 활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브랜드 가치 향상, 마케팅 강화 등 수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엔저 지속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수출산업화를 추진하고 국가차원의 글로벌 산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기업들의 투자여건 개선과 경제민주화 등 대기업 규제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

1. 엔/달러 환율 110엔 이상 돌파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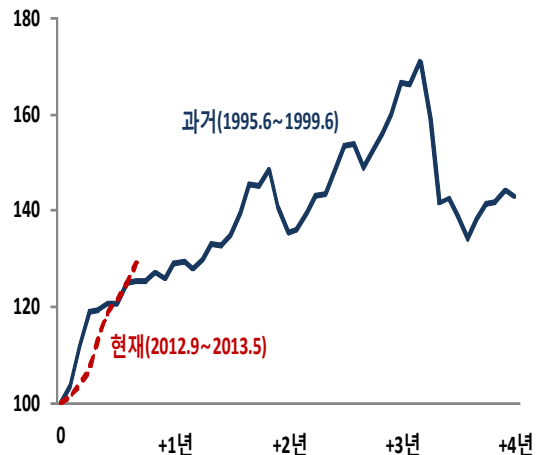
- 최근 엔/달러 환율은 아베 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의 시행으로 4년 만에 100엔대를 돌파하는 등 빠르게 절하되고 있음
 - 엔/달러 환율은 작년 9월부터 빠른 상승세를 지속
 - 엔/달러 환율은 5월 10일 100.6엔을 기록하며 2009년 4월 이후 약 4년 만에 100엔대를 돌파하였으며, 5월 23일 현재 103.2엔을 기록
 -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엔화 절하 폭인 22.5%는 과거 엔화 약세기인 1차(1988.6~1990.5) 17.3%, 2차(1995.6~1996.7) 22.8%, 3차(2004.11~2007.6) 14.5%와 비교하여 가장 빠르고 크게 절하
 - 엔화 가치는 2013년 말에는 120엔 근접한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큼
 - 엔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고평가되었으나, 최근 하락세로 장기평균환율인 104.8엔에 근접
 - 주요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를 보면 엔저 현상이 향후 1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대로 엔화가 절하되면 최대 상반기말에 110엔, 연말에 120엔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임¹⁾
 -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엔화가 절하 되었던 1995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엔화 약세가 최대 3년 이상 지속되었음
 - 엔저로 인한 국내 산업의 충격과 아베노믹스의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
 -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 우려로 일본 국채금리가 폭등하며 일본발 재정위기 및 금융위기 가능성이 제기

< 원/달러, 엔/달러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엔화 약세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1) “주요 투자은행 환율전망” 국제금융센터, 2013. 5. 20

<참고> 과거 및 현재 엔화 약세기

○ 엔/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절하된 시기는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 최근의 네차례

- 1차 : 세계경제 성장 부진으로 한국 수출 둔화(달러대비 엔저원고)
- 2차 : 세계경제 성장 부진으로 한국 1996년 수출 급락(달러대비 엔저원저)
- 3차 : 세계경제 호조로 한국 수출 양호(달러대비 엔저원고)
- 4차 : 세계 저성장 기조로 수출 회복세 미흡 전망(달러대비 엔저원고)

구분		1차 (1988.6~1990.5)	2차 (1995.6~1996.7)	3차 (2004.11~2007.6)	4차 (2012.9~현재)
환율	엔/달러	17.3% 절하 (127.0→153.5)	22.8% 절하 (84.5→109.4)	14.5% 절하 (104.8→122.6)	22.5% 절하 (78.2→100.9)
	원/달러	3.0% 절상 (730→709)	6.4% 절하 (761→813)	17.1% 절상 (1,087→928)	2.37% 절상 (1,124→1,098)
	원/100엔	24.2% 절상 (574→462)	21.3% 절상 (901→743)	37.5% 절상 (1,041→757)	30.3% 절상 (1,439→1,104)
배경	세계 (일본 포함)	미국 저축대부 조합 파산 일본 주식 및 지가 급등 후 급락	역플라자 합의 (1995.4)	일본,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	주요 선진국 대규모 양적완화 일본 아베노믹스
	한국	경상수지 흑자	경상수지 적자 외국인 투자자금 순매수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투자자금 순매도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투자자금 순매수
세계	성장률	평균 3.9% 성장	평균 3.5% 성장	평균 5.1% 성장	평균 3.2% 성장
한국	성장률	평균 9.3%	평균 8.1%	평균 4.7%	평균 2.5%내외 ('12 2.0%)
	경상 수지	평균 62억 달러	평균 -155억 달러	평균 217억 달러	평균 400억 달러내외 ('12 431억 달러)
	수출 증가율	평균 11.8%	평균 17.0 ('96 3.7%)	평균 17.9%	평균 2.2% 내외 ('12 -1.3%)

자료 : 한국은행, IMF 자료 이용하여 재구성.

주 : 환율은 엔화 가치 약세 기간 중 최저점과 최고점의 월평균 기준.

2. 엔화 가치 급락의 배경

- (아베노믹스 추진) 아베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양적·질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등 엔화 약세 정책을 추진
 - 일본은행은 금융정책회의에서 양적·질적 금융완화 조치를 발표2)
 - 일본은행은 통화정책지표를 콜금리 기준에서 본원통화 기준으로 변경하고, 본원통화를 현재 138조 엔에서 올해 말까지 200조 엔으로 늘리겠다고 발표
 - 자산가격의 위험 프리미엄을 낮추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J-REITs)의 잔액이 각각 연간 1조엔, 300억 엔씩 증가하도록 매입
 - 소비자물가는 향후 2년 내 2%까지 용인. 2013년 3월 현재 소비자물가는 -0.9%
 - 아베 정부는 대내외 국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엔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지속할 것을 천명
 - 일본의 엔화 약세 정책은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4월 18~19일)에서 국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용인을 받음
 -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협의체인 G7(5월 10~11일) 회의에서도 엔저에 대한 명시적인 비판을 피함에 따라 일본은 금융완화 조치를 지속할 토대를 마련

< 일본은행 양적·질적 완화 주요 내용 >

정책	주요 내용
통화정책 운용목표	- 통화정책 운용목표 : 콜금리→본원통화 - 본원통화 확대 : 2012년말 138조엔→2013년말 200조엔→2014년말 270조엔 - 물가 목표 : 물가 상승 목표치인 2% 달성 시까지 양적완화 지속
국채 매입 확대	- 장기국채 매입 확대 : 2012년말 89조엔→2013년말 140조엔→2014년말 190조엔 - 매입 범위 : 국채 매입 범위 40년 만기로 확대 - 매입 확대 :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J-REITs) 연간 1조엔, 300억엔 매입

자료 : 일본은행

- 2) 일본 정부는 2013년 초부터 13.1조엔(예산 대비 14%)에 달하는 추경을 실시. 특히 제조업 중심의 민간투자 활성화 및 R&D투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회복 및 수출 확대 전략 추진을 위해 약 1.8조 엔을 투입할 예정.

○ (무역수지 적자 지속)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등 엔화 약세의 원인으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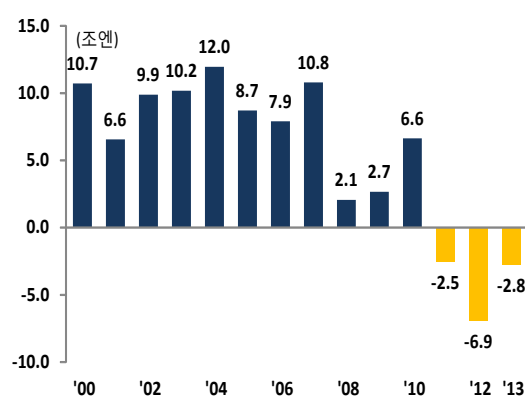
- 2011년부터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한 일본은, 최근 적자폭이 크게 증가
 - 수출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 둔화로 부진한 반면,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하며 원유, LNG 등 원자재의 수입이 크게 증가
 -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2011년 약 31년 만에 적자로 전환된 이후 점차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음

< 일본 수출, 수입 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 일본 무역수지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3년은 1~3월 누적임

○ (안전자산 선호 완화) 최근 안전자산 선호 심리 완화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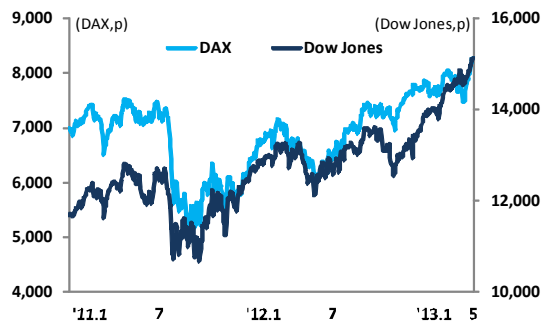
- 금융위기 이후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증가하였던 엔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퇴조
 -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엔화 등은 약세를 보인 반면, 최근 주요국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는 등 위험자산 선호가 증가

< 엔/달러, 금가격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fnguide

< 다우존스, 닥스 지수 추이 >



자료 : fn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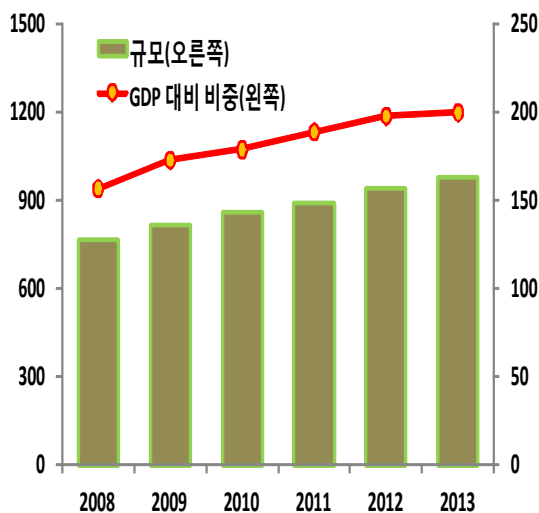
○ (일본 국가부채 증가) 아베노믹스 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아베노믹스 효과가 단기적으로 일본 경제에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본의 수출증가율은 2013년 3월 전년동월대비 1.1%로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실업률도 4.1%로 하락하여 최근 4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
-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적절한 통제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짐
 - 국가부채 규모는 2008년 770조엔에서 2013년 977조엔으로 200조엔 증가, GDP 대비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2013년 200%로 상승

○ (국제 금융시장 여건) 엔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나치게 고평가되었던 현상이 해소되는 과정에 있어 당분간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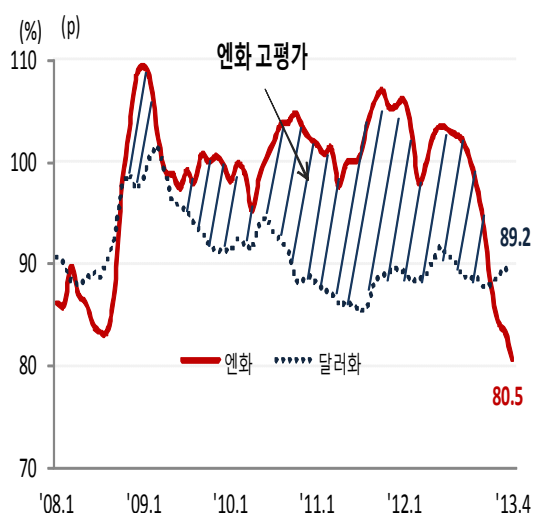
- 엔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3년 초까지 달러대비 지나치게 고평가되었으나 최근 3개월 달러대비 저평가로 전환됨
 - 엔화의 실질실효환율은 2008년 11월에서 2013년 1월 기간 중 월평균 11.3% 고평가되었음. 최근 3개월 평균 7.4% 저평가 기록
 - 엔/달러 환율은 장기평균환율 수준인 104.8엔(2000~2013년 4월)에 근접해 가고 있음

< 일본의 국가부채 추세 및 전망 >



자료 : 일본 재무성

< 엔화, 달러화의 실질실효환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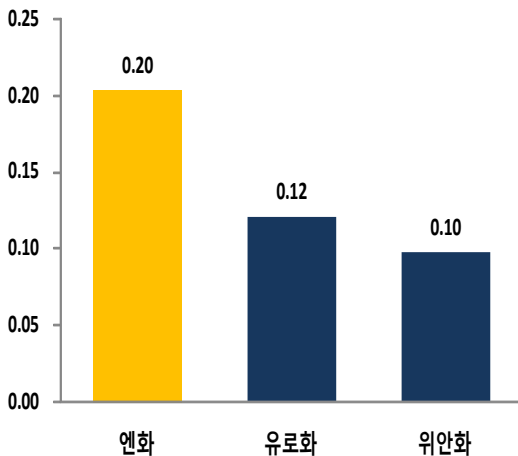


자료 : OECD

3. 엔화 약세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금융시장 충격) 엔화 환율의 급격한 약세는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국내 주식 시장의 위축 가능성을 높임
 - 엔화 환율의 급격한 약세는 원화 환율 변동성을 높임
 - 우리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은데다 세계 시장에서 일본제품과 경합도가 매우 높아 원화환율이 엔화환율과 밀접히 연관
 - 과거 원화와 엔화의 변동성 간의 상관관계는 0.20으로 유로화의 0.12, 위안화의 0.10 보다 높음
 - 기존 연구³⁾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이 1% 변할 때 평균적으로 동일 날짜의 원/달러 환율이 0.62% 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엔화 환율의 약세는 국내 기업들의 가치를 낮추어 국내 주식시장을 위축
 - 주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화한 것으로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되어 있음
 - 엔화 환율의 약세는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내 기업들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것은 주가하락으로 나타남
 -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KOSPI 주가와 엔/달러 환율 간의 상관관계는 -0.70으로 엔화 환율의 가치가 약세일 때 KOSPI 주가는 하락
 - 엔저의 영향이 본격화 되며 올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0.38%로 작년 0.29%보다 0.09%p 증가하였으며, 주식시장 역시 연초대비 3.0% 하락

< 원화와 주요 통화의 변동성 간 상관관계 >



< KOSPI와 엔달러 환율 >



자료 : 한국은행
 주 1) 2000년부터 현재까지이며 일간 변동성을 이용
 2) 변동성=금일종가-전일종가/전일종가

자료 : 한국은행

3) “주문흐름을 이용한 원/달러 환율의 표본 외 예측 분석, 한국경제학회“

○ (대외거래 악화) 엔화 가치 하락은 국내 주요 산업들의 수출 둔화, 무역수지 및 관광수지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

- 수출 : 엔저에 따른 수출경쟁력 저하로 엔/달러 환율이 2013년 연평균 100엔으로 상승시 국내 총수출은 -2.6%, 110엔 이상시 약 -5% 이상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엔저 현상 지속으로 2013년 연평균 엔/달러 환율이 100엔으로 유지될 경우 국내 총수출은 약 5,334억 달러로 전년대비 -2.6% 감소할 전망
 - 엔저 현상 심화로 엔/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연평균 110엔 및 120엔에 달할 경우 국내 총수출은 각각 5,202억 달러(-5.2%), 5,080억 달러(-7.3%)로 감소할 전망
 - 주요 수출 품목별로 보면 엔/달러 환율이 연평균 100엔일 경우 철강 326억 달러(-11.9%), IT 1,098억 달러(-1.8%), 기계 380억 달러(-1.7%)로 감소할 전망⁴⁾
 - 연평균 110엔 및 120엔으로 상승 시에는 특히 철강, IT, 기계, 석유화학 산업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엔/달러 환율에 따른 주요 수출 품목별 2013년 수출 전망⁵⁾ >

(단위: 달러)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기계	가전	IT
100엔 (20.2%)	458억 (-0.2%)	326억 (-11.9%)	477억 (1.0%)	380억 (-1.7%)	133억 (5.6%)	1,098억 (-1.8%)
110엔 (27.4%)	445억 (-3.1%)	314억 (-15.1%)	468억 (-0.9%)	370억 (-4.3%)	132억 (4.3%)	1,072억 (-4.1%)
120엔 (33.5%)	432억 (-5.8%)	303억 (-18.0%)	460억 (-2.6%)	361억 (-6.6%)	130억 (3.1%)	1,049억 (-6.2%)

자료: 한국은행 및 무역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1) 엔/달러 환율 괄호는 2012년 평균 79.8엔 대비 2013년 평균 100엔, 110엔, 120엔시 절하율

2) 원/달러 환율은 1,100원으로 가정

3)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기계, 가전, IT 산업의 수출 합계는 2012년 기준 총수출 대비 약 53.5%임

4) 자동차의 경우 2012년 하반기 수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2013년 수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되었으며, 가전제품은 2013년 1~4월 누적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것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산업 수출은 MTI코드 기준 석유화학 21, 철강 61, 자동차 741, 기계 71+72+73, 가전 82, IT 812+813+831+8361임

- 수입 : 엔/달러 환율이 2013년 연평균 100엔으로 상승시 약 -2.5%, 110엔을 넘을 경우 약 -3% 이상 국내 총수입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2013년 연평균 엔/달러 환율이 100엔으로 유지될 경우 국내 총수입은 5,066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2.5% 감소할 전망
 - 엔/달러 환율이 2013년 연평균 110엔일 경우 국내 총수출은 전년대비 -3.4% 감소한 5,019억 달러, 120엔일 경우 -4.2% 감소한 4,980억 달러로 전망
- 무역수지 : 엔저 현상 심화는 수출을 수입보다 크게 감소시켜 2013년 무역수지가 엔/달러 환율이 연평균 100엔으로 상승시 268억 달러로 전년대비 -15억 달러, 110엔을 넘을 경우 전년대비 -100억 달러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엔/달러 환율에 따른 2013년 수출입 및 무역수지 전망 >

(단위 : 억 달러)

	수출	수입	무역수지
100엔	5,334억(-2.6%)	5,066억(-2.5%)	268억(-15억)
110엔	5,202억(-5.1%)	5,019억(-3.4%)	183억(-100억)
120엔	5,080억(-7.3%)	4,980억(-4.2%)	100억(-182억)

자료: 한국은행 및 무역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 주: 1) 엔/달러 환율 괄호는 2012년 평균 79.8엔 대비 2013년 평균 100엔, 110엔, 120엔시 절하율
- 2) 원/달러 환율은 1,100원으로 가정
- 3) 무역수지 괄호는 2012년 무역수지(283억 달러) 대비 변동폭을 의미

- 관광수지 : 엔화 약세로 한국에 입국하는 일본인 관광객은 감소하는 반면, 일본으로의 한국인 관광객은 늘어 관광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⁶⁾
 - 訪韓 일본인 관광객 소비지출 감소액은 7.6억 달러로 추정, 訪日 한국인 관광객 소비지출 증가액은 약 2.8억 달러에서 약 3.3억 달러로 추정, 총 관광수지 손실 규모는 약 10.4억 달러에서 약 10.9억 달러 수준

< 엔/달러 환율에 따른 2013년 관광수지 전망 >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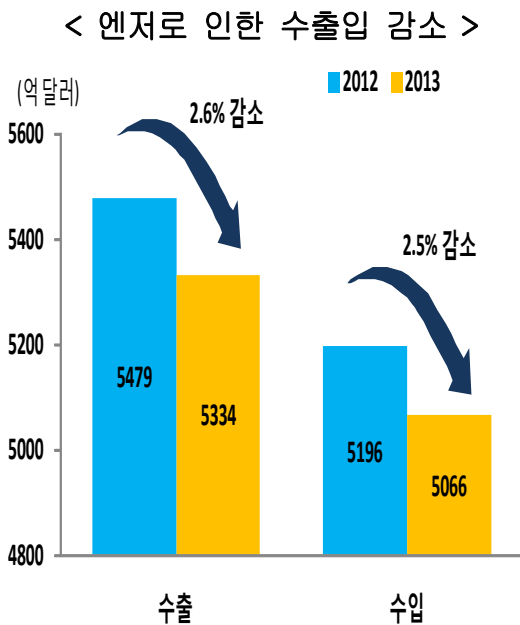
	訪韓 일본인 관광객 소비지출 감소	訪日 한국인 관광객 소비지출 증가	관광수지
100엔	-7.6억 달러	3.3억	-10.9억
110엔		3.0억	-10.6억
120엔		2.8억	-10.4억

자료: 한국은행 및 무역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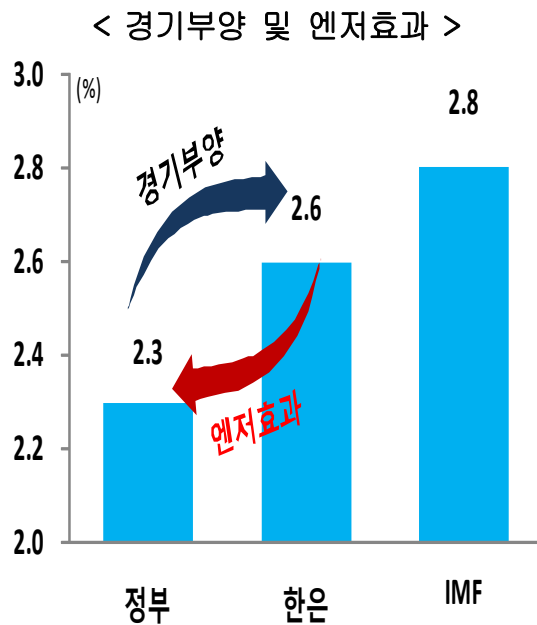
6) 원/엔 환율 하락으로 현재까지 관광객 변화 트렌드가 유지 된다고 가정, 訪韓 일본인 관광객 감소 비중 및 訪日 한국인 관광객 증가 비중은 모두 20%로 함, 訪韓 일본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081달러, 訪日 한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0만 1,600엔으로 함, 日本 観光庁(平成24年79月期 報告書), 訪日外国人の消費動向—訪日外国人消費動向調査結果及び分析; 문화체육관광부(2012. 12), 2011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 (성장률 둔화) 엔/달러 환율이 작년보다 올해 20% 절하 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둔화될 우려

- 엔/달러 환율의 상승은 수출 둔화로 인한 무역수지 감소 및 관광수지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엔화 환율이 20% 절하(연평균 100엔)될 경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약 2.6%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엔화 환율이 20% 절하(연평균 100엔)될 경우 무역수지 15억 달러, 관광수지 10억 달러 등 감소 요인으로 작용
- 엔화 약세는 추경 예산 편성 등 수출 둔화로 인한 무역수지 감소 및 관광수지 악화로 이어져 경기부양효과를 상쇄할 우려
 - 정부의 17.3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경기부양효과는 약 0.3%p 정도 일 것으로 분석
 - 엔화 약세로 인한 무역수지 및 관광수지 악화 등으로 국내 경제 성장률은 약 0.2%p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올해 엔화가 20% 절하(연평균 100엔대) 될 경우, 정부의 경기부양을 고려한 성장률 전망치인 2.6%에서 2.4%로 하락할 우려



자료: 한국은행 및 무역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IMF

4. 시사점과 과제

첫째,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미세조정 및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원/엔 환율의 급락을 방지

-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내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환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미세조정 및 안정화 대책을 통해 원/엔 환율 급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일본정부의 정책과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외환시장 불안정에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응 체제 구축 필요

둘째, 일본의 양적완화에 따른 엔저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관련 국가들과 통화 공조 체제 강화

-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한국 역시 적정금리 수준 및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
 - 향후 엔화 대비 원화 강세 흐름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함께 유동성 공급 확대 등도 검토할 필요
- 엔저 지속에 따른 피해 국가들과 함께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G-20 등을 통한 통화 공조 방안 및 공동 대응 전략 마련

셋째, 주요 수출시장에서 FTA의 적극적인 활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브랜드 가치 향상, 마케팅 강화 등 수출 경쟁력 제고 필요

- 특히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FTA활용 지원을 확대하여 FTA 활용률을 높임으로써 엔화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
- 한류 등을 활용한 코리아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여 가격 외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도 필요

넷째, 중장기적으로 엔저 지속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수출 산업화를 추진하고 국가차원의 글로벌 산업 전략을 마련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수출 산업화 전략을 통해 수출 환경 변화에 대응
 - 일본 산업 회복에 대비하여 일본과 차별화된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수출 산업화 전략을 마련
 -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은 물론 재원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적절한 투자 운용 계획을 마련해야 함

다섯째, 기업들의 투자여건 개선과 경제민주화 등 대기업 규제 정책을 자제

-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통한 수출 품목의 품질 개선과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개선
 -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R&D 지원을 확대하고, 펀드 조성 등을 통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
 - 특히 기존 수출 제조업의 R&D 및 수출 지원 강화를 통한 상품 수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중소·중견 기업들에 대한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강화
- 경제민주화 등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기업 규제 정책을 자제
 - 또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및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통해 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수출 산업의 경쟁력 제고 **HRI**

임희정 연구위원 (limhj9@hri.co.kr, 02-2072-6218)
김천구 선임연구원 (ck1009@hri.co.kr, 02-2072-6211) 외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1.8	0.1	2.5	1.3	4.1	2.2	2.0	1.3	3.1	0.4	1.9
유로 지역	1.4	0.8	0.2	0.1	-0.4	-0.6	-0.1	-0.2	-0.1	-0.6	-0.3
일본	-0.6	-7.3	-2.8	10.4	0.6	2.0	6.1	-0.9	-3.7	0.2	1.6
중국	9.3	9.7	9.5	9.1	8.9	7.8	8.1	7.6	7.4	7.9	8.0

주 1) 2013년 전망치는 IMF 2013년 4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5월 17일	5월 23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1.95	2.02	0.07%p
	엔/달러	77.66	79.37	85.86	102.86	103.18	0.32¥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2830	1.2844	0.0014\$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5,354	15,295	-59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5,138	14,484	-654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60	2.61	0.01%p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116.8	1,128.7	11.9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1,982.4	1,969.2	-13.2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5월 17일	5월 23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96.00	94.12	-1.88\$
	Dubai	104.89	92.89	107.99	100.86	98.68	-2.18\$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287.60	286.03	-1.57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9	3.5	3.7	2.6	1.5	2.0	3.1
	민간소비 (%)	3.1	1.7	2.4	1.2	2.2	1.7	2.5
	건설투자 (%)	-7.0	-2.6	-4.7	-1.9	-2.4	-2.2	2.2
	설비투자 (%)	9.0	-1.3	3.6	2.3	-6.1	-1.9	4.8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138	295	431	285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109	174	283	257
	수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2,750	2,729	5,479	5,786
		(증가율, %)	23.6	14.9	19.0	0.5	-3.1	-1.3
	수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2,641	2,555	5,196	5,529
		(증가율, %)	26.7	20.2	23.3	2.3	-4.0	-0.9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7	1.7	2.2	2.5
실업률 (평균, %)		3.8	3.0	3.4	3.6	2.9	3.2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42	1,112	1,127	1,06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